

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문안드리며 고난주간 이후에 부활 주일 인사를 미리 드립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추억여행을 떠나는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역의 처음부터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한 교회와 동역자님들이 받아야 할 감사패를 제가 대신 받고 왔습니다.

처음 사역지 기숙사의 공동수도에서 물을 길어서 살아야 했고, 97년 말 외환위기는 2명의 현지인 자매와 현지인 가정의 한 방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하면서 7명이 함께 생활했던 6개월이 가정복음화를 통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95년 8살, 11살이었던 어린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임신한 29살, 4살 사내 아이의 엄마 32살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3:8)는 약속의 말씀처럼 동역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는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란에서 7개월 만에 추방(비자발적 출국)은 성령께서 지금 사역지에서 한식을 통한 전문인 사역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면서 만난 1부인을 한국에서 섬긴 2주간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의 첫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씩 걷다보니 파송교회에서 마련한 20주년 행사를 통해 2016년 2월에 한국 땅에 있어야 할 주님의 계획과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 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 34:1-2)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필요를 적은 메모의 물품까지 예비하신 아버지의 섬세한 손길은 감동이었습니다. 항공권, 건강검진, 파송교회 권사회를 통해 만난 7명의 권사님과의 교제, 믿지 않는 현지인 친구 아줌마의 입국과 2주간의 여행 동안 1부인을 감동시킨 많은 돕는 자들.....이 모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동역자님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사역지로 돌아왔는데, 이 나라의 폭탄 테러 소식과 유럽에서의 소식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은 수도의 사건 이후 지방에서도 테러들이 있어 시내 중심가와 지하철, 백화점 외출을 삼가 하라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는데, 교통체증도 덜하고 거리도 한산한 편이고 퇴근시간을 앞당기거나 심지어 출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쿠르드족 명절을 맞아 테러 경고가 있었고 1시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식 수업에도 토요일에는 70%가 결석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저를 통해 주님이 일하셨음을 나누며, 직접 만나지도 연락도 못 드린 동역자님들께 죄송한 마음과 늘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랑에 빛진 김에스더 드림

- 1)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영성과 삶
- 2) 주일 방문했던 가정과 한국에 동행했던 아주머니(딸)와 성경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 3) 2016년 한식 사역 계획에 현지 학원과 타도시의 협력자 연결이 순적하도록
- 4) 남은 사역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기도와 재정으로 함께 할 교회와 동역자를 위해